

‘예산 전쟁’ 막 오른다...광주·전남 예산 확보 총력전

광주, 국회에 국비 전력팀 배치...AI 혁신실증 밸리 조성 등 집중 전남, SOC 예산 감액에 고속철 2단계 사업 등 3000억 확보 절실

광주시와 전남도가 2025년 예산 국회 시작에 따라 지역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국비 전력팀원들은 국회 상주 근무에 돌입했으며,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정난에 따른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여야 간 극심한 예산 대립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증액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17개 시도 간 국비 확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을 공식화했다.

예결위는 11월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이어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예정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다만 매년 여야 간 예산 의견 충돌 등으로 최종 심의 의결은 지연됐으며, 지난해에도 법적 기간을 훌쩍 넘긴 12월 21일에야 최종 의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국회 예산 일정에 맞춰 지역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매년 정부 예산안은 각 부처에서 확정안 예산 계획을 기획재정부가 조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는 삭감과 증액 과정을 거친 뒤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미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년도 사업 예산은 지키거나 증액하고, 미반영 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이날부터 12월 국회 예산 의결 때까지 국비 전력팀 3명을 국회에 배치했

며, 앞서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와 당정 예산 정책 협의를 개최하고 추가 국비 확보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특히 인공지능 혁신실증 밸리 조성,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등에 대한 국비 반영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 역시 지난 28일 국회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마지막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30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전남도는 국비 담당 직원·팀장·과장 등은 물론 시·군 예산 담당자들도 서울에 상주하며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전남도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 최소 3000억원(64건) 이상 추가 반영토록 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았다.

특히 정부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예산 1조 7000억원을 감액한 만큼 미래 100년 전남 발전을 책임질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내년 전남지역 SOC 국비 확보액의 경우 정부안에는 전년보다 41.8%(5064억원)가 감액된 7029억원이 편성, 1조원대 예산 확보가 무너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사회간접자본 국비는 1조 2000억원으로 경기(3.5조), 경북(3.5조), 강원(2.2조), 경남(1.2조)과 견주 최하위 수준이라 행평성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국회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2536억 증액) ▲완도~광주 고속도로 구간(1단계(광주-강진) 사업(460억))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100억) ▲보성-임성리 철도(남해선) 건설(172억)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31억) 등 현안 사업비 추가 반영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청소년 꿈·기 펼쳐라” 광주 북구 일곡중학교 홀클래스 개관식이 31일 오전 일곡중학교 교정에서 열렸다. 일곡중 학생들이 교내 홀클래스의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일곡중 홀클래스는 광주 북구가 추진 중인 ‘HOPE STREET(희망의 거리)’와 연계된 협력사업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김광진 전 광주부시장, 글로벌광주방송 ‘고액 출연료’ 논란

‘특급’ 등급...월 평균 600만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특혜 지적

방송 전문 경력도 없는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시 출연기관인 글로벌광주방송(GGN·옛 광주영어방송)에서 역대 최고액인 월 평균 600여만원 수준의 출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GGN은 김 전 부시장의 출연료 책정에 인기도와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김 전 부시장이 방송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닌 데다 방송 내용도 광주시·전남도 보도자료 정보 제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GGN 업무를 소관하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귀순(민주·광산구4) 광주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GGN으로부터 받

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지난 7월부터 ‘김광진의 오 마이 광주(OMG)’라는 방송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내려놓은 김 전 부시장은 민주당 경선 탈락 이후 4개월간 방송을 진행 중이며, 월 600여만원대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GGN ‘특급’ 등급으로 책정돼 매달 600만원을 받고 있다. 하루 1시간씩 방송하는 것을 감안하면 시급 기준 30만원, 10분당 5만원인 셈이다. 이마저도 영어 진행 시간을 빼면 30~40분 안팎에 불과하다.

GGN 출연료 규정에 따르면 10분당 최고 4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며,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따라 별도 제작비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김 전 부시장에게 10분당 1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해당 방송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1부 ‘광주 업데이트’, 2부 ‘OMG 초대석’으로 진행되고 있다. 2부 인터뷰는 비교적 기초자치단체장, 광주시의원, 광주시 산하기관장,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하지만 1부는 지역 보도자료를 기사 등을 읽는 수준에 불과해 김 전 부시장에 대한 과다 출연료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김 전 부시장은 같은 ‘특급’ 등급으로 분류된 출연자들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특이나 어려운 GGN의 예산난을 가중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귀순 의원은 “그동안 이렇게 과도하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특혜’ 출연료는 없었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대구 여성단체, 11년째 ‘달빛 교류’ 행사

광주 김치박물관·ACC 방문 저출산 대응 캠페인 진행도

광주와 대구 여성단체들이 11년째 ‘달빛 교류’를 이어가며 우의를 다졌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와 대구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31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술에서 교류·협력 행사를 가졌다.

두 도시 여성단체 회원들이 정책 협력과 문화 교

류 등을 한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11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저출산 대응 공동 캠페인을 한 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김치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의 맛과 멋을 경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달빛철도 건설 등 두 도시가 떨 수 없는 상생동반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여성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공무원 드론 활용 인력 키운다

드론공무원서 비행실습 중심 교육

광주시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지난 31일부터 이틀간 북구 드론공원에서 사자지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행 실습 중심의 ‘드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정밀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할 공공분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드론의 이해, 항공안전법, 조종자 준수 사항, 드론을 활용한 업무 사례 등 이론 교육과 비행원리 및 조종법을 익히는 현장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또 촬영된 영상데이터베이스(DB)를 활

용한 후처리 제작 실습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지역직 공무원에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광주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확대했다.

송희중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드론교육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학 부 |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모집 단 위 | 수 시 | 정 시 |
| 인 문 사 회 | 신 학 과 | 30 | 5 |
| | 한국어교육학과 | 1 | 1 |
| 사 범 예 능 | 복지상담융합학부 | 24 | 5 |
| | 유아교육과 | 8 | 2 |
| 예 능 | 음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 21 | 8 |
| | 총 계 | 84 |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For the Lord To the World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